국헌공 권칙權伋에 관한 실기자료【6】

작품 해설

■작품 해설

국헌공이 문집을 남긴 것으로 여러곳에 언급되어 있으나 앞서도 말했듯이 전함이 없어 알길이 없고 타인의 문집에서도 그 글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의 연구로 한문소설漢文小說 강로전姜虜傳이 공의 소작으로 발굴 연구된 데에 이어 안상서전安尙書傳이 또한 공의 소작 한문소설로 발굴 소개되었다. 이 두 한문소설이 과연 공의 실전失傳된 문집文集에 실려 있었던지 어떤지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문집에는 이 두 소설이 실려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쨌든 공이 이런 소설을 두 편이나 지어 남겼다는 사실이 가전家傳으로나 구전口傳으로나 전함이 전혀 없어 최근에 학계의 연구로 발굴이 될 때까지 모두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바였다.

그밖에 공의 문작文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기丙子胡亂期에 공이 일본에 가는 통신사절通信使節의 제술관製述官으로 가서 당시 일본에서 문명文名이 있던 석천장산石川丈山과 필담筆談으로 교류하며 주고받은 창화집唱和集이 있고 또 하나 당시의 일본 문인 임나산林羅山과 나눈 필담이 일본의 나산문집羅山文集에 실려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강로전姜虜傳

‘강로전’은 ‘강姜’씨의 ‘오랑캐’에 관한 ‘전’의 뜻이다. 그‘강’은 강홍립姜弘立이라는 실재인물이다. 강홍립은 명종 15년, 1560년에 나서 인조 5년, 1627년까지 68세를 살았다. 본관은 진주晋州이고 자는 군신君臣, 호는 내촌耐村이며 좌참찬 진흥군晋興君 강신姜紳의 아들이다. 그 조부는 우의정 강사상姜士尙이다. 선조 22년, 1589년에 30세로 진사進士가 되고 1597년에 38세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설서設書·검열檢閱 등을 거쳐 1605년에 도원수 한준겸韓浚謙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고 이해 진주사進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에 다녀왔다.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시강원보덕侍講院輔德이 되고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서 1614년 순검사巡檢使가 되고 1618년에는 진녕군晋寧君이 되었다.

이때 후금後金이 명나라 변경을 침략하여 세력이 확장되자, 명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청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신흥의 후금을 의식하면서도 임란 때 명이 원병을 보낸 의리로 출병을 아니할 수 없었다. 이에 강홍립은 오도원수五道元帥가 되어 광해군 10년, 1618년 10월에 부원수 김경서金景瑞와 함께 1만3천 군사를 이끌고 만주로 출병하였다. 역성易城을 거쳐 이듬해 1619년초에 명의 제독提督 유정劉綎의 군과 압록강 북안 관전寬甸 방면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이루고 동가강佟佳江을 따라 회인懷仁에서 노성老城으로 향하였다. 요하遼河를 건너 심하深河에서 적과 상우相遇하였는데 조명연합군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여 앞뒤에서 적을 협격하기로 하였으나 작전에 차질이 생겨 부차富車의 회전에서 대패하였다. 이때 김응하金應河는 전사하였으나 강홍립은 적진에 ‘조선의 출병이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남은 군사와 함께 투항하였다. 이는 출정 전에 임금 광해군이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고 한 밀지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조정에서는 그를 배역으로 몰아 관작을 삭탈하였다. 이듬해에 함께 투항했던 조선군 포로는 석방되어 돌아왔으나 강홍립은 김경서 등 10여명과 계속 억류되어 있다가 7년 뒤 인조 5년, 1627년의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후금 침략군의 선도로 입국하여 강화江華에서의 화의를 주선한 뒤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신逆臣으로 지목되어 삭탈된 관작은 회복되지 않다가 사후에 복관되었다.

이와 같은 강홍립과 대치되는 인물로 김응하金應河가 있다. 김응하는 무신武臣으로 강홍립보다 20년 뒤인 선조 13년, 1580년에 나서 광해군 11년, 1619년에 40세로 전사했다.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자는 경의景義이며 철원鐵原 출신이고 고려 명장 김방경金方慶의 후손인데 이른바 구안동김씨이다. 13세에 임란을 만나 혹독한 전화를 겪으며 장성해서는 선조 37년, 1604년에 25세로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무과선달先達이 대개 그렇듯이 처음에는 별로 쓰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평소 그의 장재將才를 아까워하던 박승종朴承宗이 병조판서가 되자 발탁되어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다. 무과를 하여 선전관에 뽑히는 것은 문과 급제자가 옥당玉堂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선전관이 된 다음해 여러 사람의 질시를 받아 파직되었고 광해군 즉위년, 1608년에 박승종이 전라관찰사로 나가자 다시 기용되어 그 비장裨將이 되었다. 그뒤 1610년에는 재차 선전관이 되었고, 국헌공의 장인인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에 의해 이번에는 함경도의 경원판관鏡源判官으로 발탁된 뒤 삼수군수三水郡守와 북우후北虞侯를 지냈다. 광해군 10년, 1618년에 명나라가 후금을 칠 때 조선에 원병을 청해오자 부원수副元帥 김경서金景瑞의 휘하에 들어가 좌영장左營將으로 있다가 이듬해 2월 도원수 강홍립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 후금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가 심하深河 전투에서 대패하자 3천 휘하군으로 수만의 후금군과 맞서 고군분투하다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패하여 전사하였다. 이듬해 1620년 명의 신종神宗은 그가 용전분투로 장렬히 전사한 데 대한 보답으로 특별히 조서를 내려 그를 요동백遼東伯에 추봉하고 처자에게 백금百金을 하사했다. 조정에서도 그의 충의를 가상하여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하고 충무忠武의 시호를 내렸다.

강로전을 처음으로 국역하여 돌베개출판사의 ‘천년의 우리소설 3, 전란의 소용돌이속에서’를 2007년 9월에 출간한 서울대 국문과의 박희병 교수는 그 작품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6세기말과 17세기초의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은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며,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다. 이 두 전쟁에 이어 1619년에는 명청교체明淸交替의 일대 분기점이 된 요동 심하深河의 부차富車 전투가 있었던 바, 당시 조선은 명의 요청에 따라 후금後金(훗날의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약 2만의 군대를 요동에 파견했었다. 이 전투에서 명의 대군은 괴멸되고 조선 군사는 대부분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1636년에는 청 태종의 조선 침략, 즉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병자호란 때 청에 항복한 이래 조선은 청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명나라를 치는 데 군사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듯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의 시기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쟁의 격랑에 휩싸인 시대였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 죽어갔으며 설사 살아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눈물나는 가족이산을 겪거나 가족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채 슬픈 삶을 살아가기 일쑤였다.

강로전은 권칙權伋(1599~1667)이 정묘호란 직후인 1630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권칙은 주생전周生傳을 지은 권필權韠의 서질庶姪이며 인조·효종·현종 때에 영평현령永平縣令 등의 말단 벼슬을 지낸바 있다. 외교사절을 따라 명나라와 일본에 다녀온 적도 있다. 문학적 재능이 있었으며, 이 작품 외에도 안상서전安尙書傳이라는 소설을 창작한 바 있다. 강로전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동사잡록東史襍錄 수록본 등이 전한다.

강로전은 강홍립을 부정적 주인공으로 내세워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이데올로기를 구현해 놓은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이면에는 문벌세족門閥世族의 무능과 전횡, 인재등용의 문제 등 조선의 현실에 대한 통절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서얼이라는 작자의 신분적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광해군은 명이 쇠망해가고 있다는 점과 만주의 신흥세력인 후금의 강성함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일종의 현실외교를 펼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강홍립에게 밀지密旨를 내려, 명과 후금이 싸울 때 적당히 관망하다가 후금에 투항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작품에 서술된 강홍립의 언행은 거의 대부분 허구에 바탕해 있으며,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 작품에서 강홍립은 대체로 용렬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인西人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강홍립은 대북大北에 속한 인물이며, 대북은 인조반정 때 서인에 의해 전멸되다 시피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새로 권력을 장악한 서인이 광해군 때의 집권세력인 대북의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서 명나라를 추종하는 노선을 취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희병 교수의 이 작품해설은, 이 작품 내용이 거짓되이 기술된 것이며 그러므로 이를 곧이듣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쓴 것처럼 되어 있다. 저자가 강홍립의 휘하에 종군하며 목도하고 천신만고 끝에 생환하여 서술한 작품이라는 점은 외면하고 당파와 숭명배청崇明排淸 사상 따위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 작품을 작품으로써 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인가 이 작품을 번역소개는 하고 싶은데 세상의 대세가 걸려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저자와 작품을 평가절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희병 교수의 번역 강로전이 출간되기 2년 앞선 2005년에 청주대학교의 소인호 교수가‘우리어문연구’라는 학술지 제24집에‘강로전 이본異本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강로전의 저본底本이 다섯이나 되는데 그것이 서로 다 이본異本이므로 어떤 것이 정본正本인지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그 논문의 도입에서 소인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5종의 현전 강로전 이본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서사 단락의 기술 양상과 표현상의 특성을 대비고찰함으로써 각 이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본을 확정하여 원작 강로전의 성격을 추정해 보았다. 작품의 내용을 7단계로 구분하여 규창본葵窓本과 자저본自著本, 국편본國編本의 세 이본을 검토해본 결과, 이들 이본은 그 계열적 성격이 확연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규창본은 국역본으로 존재하던 이본의 재번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문의 번역 과정에서 구어체적 표현이 자주 출현하고 인명과 지명의 표기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그 저본인 국역본은 원작 계열 강로전을 거의 축차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다음으로 자저본은 주로 세부적인 장면 묘사와 대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 전편에 걸친 심한 축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결과 원작 강로전이 지녔던 바의 소설적 성격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그 대신 비교적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일부 대목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곁들여져 있고 작품 말미에서는 별도로 서술자의 평결이 추가되어 있다. ‘강홍립전’이라는 제목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 전으로의 양식적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기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구성과 표현양상 등을 검토해본 결과 국편본은 화몽집본花夢集本·동사잡록본東史襍錄本과 함께 원작 계열의 이본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국편본은 문장 표현과 고유명사의 표기, 어휘의 활용 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몽집본과 동사잡록본에는 그와 같은 오류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